

주일 예배 순서

- 주현 후 마지막 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25:12-15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새찬송가 38장(스크린참조) 다함께
교 독 문(Responsive Reading) 7번(새 10번)..... 다함께
공 동 기 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는 진정한 사랑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보다 더 크고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웃을 말과 혀로만 이 아닌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모든 이기적인 마음과 탐심을 물리치고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전쟁과 지진, 재해로 고통 받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또한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누가복음 16:19-31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일어나는 결과

봉 헌(offering) 6장(새 2장)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Hymn) 379장(새 204장)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사랑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2. 오늘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의 지진 난민들을 위한 구호헌금을 드립니다. 모여진 헌금은 국제구호기구나 공인된 기관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그동안 영어권 사역을 담당하셨던 Jeremy Kiner 목사님께서 다음 주일을 마지막으로 사임을 하십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4. 동북오하이오 교역자 월례회가 내일 오전 11시에 클리브랜드 중앙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제목>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의 지진 난민들에게 필요한 모든 인적, 물질적 자원이 신속히 공급되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시도록
- 미 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좌골 신경통), 신성화집사님 어머니,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니, 임현정사모님 어머니

<말씀묵상> 누가복음 16:25-31

25 아브라함이 이르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27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1. (누가복음 16:19-24절을 먼저 읽으십시오). 부자와 나사로의 세상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떤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까?(25-26절)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2.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내 증언하게 해달라고 구했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입니까?(27-31절)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봅시다.

❖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 뒤에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름 아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고 그 책임을 물으시는 공정한 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동안 주어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영생과 영벌의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할 수만 있으면 안락함과 호사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능력과 환경이 안 되어서 그렇지, 어떤 누구도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지 내가 내 돈 가지고 어떻게 살든지 무슨 상관이야 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부자 나사로는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사는 호사스러운 삶을 누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부요함을 주셨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았을지라도, 그가 마땅히 행했어야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돌보아야 하는 사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계명을 일생토록 범하며 산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 지옥의 형벌을 피하려는 소극적이고 안일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심판의 기준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은 죄'(약 4:17)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불법을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지금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삶이 내일을 결정하고 내일의 삶이 결국 미래와 영원을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